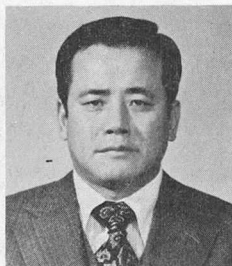


● 특집 /

'88진단

● '88년을 보내며

동물약품업계를 돌아본다



김길원

(한국바이오테크(주) 대표이사)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고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세계인의 큰 잔치인 '88올림픽이 우리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사상 최대의 행사로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아시아의 한국에서 세계속의 한국으로 발판을 굳히는 계기가 된 한해였다.

또한, 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의 물결과 개방화의 물결로 정치, 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경제분야에 까지 붓물 터지듯이 밀어닥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진통을 겪었다. 특히, 축산물 수입개방의 파문은 전국의 축산인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분야에 까지 지대한 영향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남이 도와 주기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어느 해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게 해 주었던 해였다.

한편, 축산업 관련산업으로서의 동물약품업계는 국내 축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 초창기 외국의 완제품에 의존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제대로 모양을 갖춘 중소기업 형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 졌다.

금년도 동물약품업계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성

장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나갈 소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이와같이 업계의 성장기조와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된것은 물론 축산업계의 전반적인 호황과 더불어 축산물의 소비증가에 따른 관련축종의 사육두수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하였겠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양식업분야의 발전과 소동물시장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초산업인 수산업이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개선에 따라 고단백·저칼로리의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양식업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이에따른 수산약제의 사용과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이제는 양식산업이 동물약품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기타 애완동물, 특수동물 등 소동물에 대한 사육관심도 증가하였다. 또한 또다른 영역으로 구축되어 동물약품시장의 양적팽창에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장에 따르는 해결되어야 할 제반 문제들이 많다고 본다. 이제는 동물약품업계도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치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즉, 국내기술 축적에 의한 신제품 개발,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원료합성 등을 생산원가의 절감,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과당경쟁 회피, 그리고 사양기술, 방역기술 등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를 통한 아프터 서비스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도 축산업계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한해였다. 축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 시세하락,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증가 등이 그렇고, 돼

지오제스키병, 소유행열, 닭뉴캐슬병 등 악성전염병의 산발적인 발생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켜 가축위생분야의 중요성을 더더욱 일깨워 주었다.

농장의 규모가 점차 전업화, 기업화 되어 감에 따라 집단사육에 따른 시설, 사양기술, 방역기술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산업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가축위생분야 측면이라고 보여진다. 가축위생은 농장경영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근래들어 동물약품의 사용추세는 과거 질병의 치료 개념에서 벗어나 예방적인 차원과 생산성과 경제성이 감안된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점은 농장의 경영과 합치되어 약품의 안전성, 편리성 및 간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동물약품업계가 앞으로 가축위생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노력 즉, 우수하고 저렴한 방역 제품의 개발·공급과 양축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기술지도와 약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계몽 등 서비스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내 사육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에 일조를 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도 우리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합치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축산인들과 관련업계 모두가 고통을 나누어 갖는다는 정신으로 마음과 힘을 합쳐 각자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다면 결코 축산업국(畜産立國)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